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2) : 209~220, 2013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4(2) : 209~220, 2013
http://dx.doi.org/10.7856/kjcls.2013.24.2.209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에 관한 연구

윤 혜 진†
동국대학교 불교아동학과

A Study on Mother's Verbal Response Types to Her Young Children

Yoon, Hye-Jin†
Department of Buddhistic Child Studies of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six mothers to analyze their verbal response types with their young children ages 3-5 attending day-care center. This study was done from 10AM. to 12PM. August 18th 2012 at the director's room at P day care center in Seoul.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four situations mothers experience in child-rearing have been selected: self-achievement, sibling quarrel, nagging and isolation. As for the interview questionnaires the four verbal response types－stimulating, problem-solving, critical and indifferent ones－have been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others tend to use stimulating verbal response types like praise in the situation of self-achievement; problem-solving response types like command in the situation of sibling quarrel; problem-solving response types like warning in the situation of nagging; and lastly, stimulating verbal response types like empathy in the situation of isolation. Mothers need to form more empathy with their children in such difficult situations as sibling quarrel or nagging. For mothers' efficient verbal responses for their children, accordingly, empathy in parent education needs to be more emphasized.

Key words: mother's verbal response types, interview, empathy, parent education

I. 서론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언어반응 양식은 유아의 발달과 삶에 영향을 준다. 어머니는 언어반응을 통하여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칭찬, 격려를 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행동에 관해서는 명령, 지시를 하면서 자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어머니의 언어반응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1980년 이후로 계속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연구들이 유아의 언어발달, 인성발달, 자아존중감, 정서발달 등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정서적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효율적인 언어반응을 통하여 자녀의 언어 및 인성발달 뿐 아니라 정서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

접수일: 2013년 4월 16일 심사일: 2013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25일
†**Corresponding Author**: Yoon, Hye-Jin Tel: 82-10-4634-5262
e-mail: hjyoon7777@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은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력이 있다(Min 2000; Jeong 2012). Min(2000)의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활동의 선택권을 많이 주며 지시보다는 문제해결 과정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언어방식을 사용하였더니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Jeong(2012)의 4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언어반응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의 요구에 따뜻한 언어적 반응을 할수록 유아도 어머니의 요구와 의견을 잘 수용한다. 어머니의 언어반응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며, 자녀가 갈등과 경쟁의식을 적게 느끼며 심리적 안녕감, 자신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Ryu 2004; Cho et al. 2011). 또한 어머니의 격려와 같은 촉진적 언어반응을 많이 받은 유아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 이타적 행동도 자주 나타낸다. 특히 어머니가 정서적 공감능력보다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들의 이타적 행동과 대인관계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정서적 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한 연민, 온정을 느끼는 것을 뜻하는 반면, 인지적 공감능력은 타인의 배려에서 생겨나는 인간적인 교류로서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Kim 2011).

반면 Min(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5세 자녀에게 지시나 명령과 같은 언어반응을 많이 사용한 결과 자녀가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언어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며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다. 어머니가 명령, 경고, 비판, 비난 등과 같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언어반응 양식은 대화의 장애물이 되며(Kim 1996), 유아에게 평가적이며 남과 비교하는 언어, 상처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 정서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Park 2001). 또한 어머니-자녀간의 대화가 적거나 언어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아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Ju 2010), 공격적 행동이 높아지며(Ko 2000),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Lee 2003).

Gumperz(1973)는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을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으로 분류하였다. 명령적 언어반응유형은 체벌이나 위협 등에 바탕을 두며, 지위적 언어반응 유형은 사회의 보편적 또는 특수한 지위에 내재한 규범에 의하여, 인성적 언어반응 유형은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고려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Park(2001)은 어머니의 언어반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촉진적인 언어반응 유형은 공감, 관심, 칭찬, 격려하는 언어반응, 해결제시적 언어반응 유형은 강요, 지시, 명령, 경고, 위협, 당부, 설교, 요구, 충고 등을 제안하는 언어반응, 비판적인 언어반응 유형은 자녀에게 정서적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말투로 평가, 비판, 비난, 빈정거림, 비교 등을 포함하며 무관심 언어반응 유형은 무관심하고 냉담한 말투, 화제를 바꾸는 언어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언어반응 유형은 사회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충고, 설득, 명령, 지시, 경고, 협박, 문제해결 제시, 남과 비교하기, 비평, 비난 모두가 자녀와의 대화의 걸림돌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비평, 비교, 상처를 주는 어머니의 말투만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우리 문화권에서는 충고, 문제해결 제시, 설득하는 언어는 자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언어반응이다(Park 2001).

여러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과 유아의 인성발달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Yoon (199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언어반응 유형이 자녀의 안정성, 자율성, 사려성과 같은 인성특성 변인들에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인 공감은 유아의 인성 특성의 모든 변인들 즉 활동성, 사회성, 안정성, 자율성, 사려성, 순수성, 자아개방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Ma(198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촉진적 언어반응 즉, 경청, 공감, 자아개방, 직면, 즉시성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병리적 인성특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은 유아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이 인성지향적일 때 아동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Ryu 2004). Jeong(2002)의 연구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비판적 언어반응 유형은 아동의 학업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Yoon & Jung(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칭찬, 격려, 존중의 말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 명령, 거친 말은 유아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은 자녀 성별에 따라서 다른 발달적 특성을 나타낸다. Lee & Lee (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반응유형이 인성적일수록 남아, 여아 모두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낙천성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Lee(2007)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이 인성지향적일수록 남아, 여아 모두 성취동기가 높은 반면, 지위지향적일수록 성취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이 지위지향적일수록 아들의 성취동기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Jeong (200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의 개성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명령적 언어반응과 다른 유아와의 비교를 포함하는 언어반응 유형을 사용한 경우 자녀 중에서도 특히 남아의 정서적 불안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더욱이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은 유아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지각하는 인생만족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을뿐 아니라(Gilman & Huebner 2003; Levin & Currie 2010; Shin et al. 2010; Cho et al. 2011), 여아에게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Levin & Currie 2010).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언어반응이 유아의 언어발달, 인성 및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연구로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주체인 어머니의 신념체계로서 유아 자녀를 명령이나 경고 혹은 칭찬이나 격려의 자세로 어떻게 자녀와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언어적 반응 유형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P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어머니 6명들이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 다니고 있는 만 3세-5세 유아의 어머니들의 면담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녀들과 언어적 반응 유형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s' geographic information (n=6)

Mother	Mother's age	Number of children	Children's ages	Children's gender	Education	Employment
A	35	2	4, 5 year old	Female: 2	University graduate	Unemployed
B	38	3	2, 4, 6 year old	Male: 3	University graduate	Unemployed
C	41	2	4, 5 year old	Male: 2	Junior college	Unemployed
D	34	1	4 year old	Male: 1	University graduate	Employed
E	31	2	3, 5 year old	Female: 1, Male: 1	Junior college	Employed
F	35	2	3, 5 year old	Female: 1, Male: 1	University graduate	Unemployed

2. 연구도구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에 대한 도구는 언어반응 4가지(촉진적, 해결제시적, 비판적, 무관심)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문헌자료들(Park 2001; Rye & Lim 2003; Seo 2007; Yoon & Jung 2010; Kim 2011; Yoon & Kim 2011)을 통하여 나타난 내용 중에서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4가지의 대표적인 상황들(자기성취, 형제간싸움, 떼쓰기, 소외)을 선택하였다. 언어반응의 하위영역들은 총 2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그 중에서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단어나 모호한 부분을 유아교육 전문가와 논의한 후 애매모호한 영역을 삭제하여 각 영역마다 3가지의 핵심단어들, 총 12가지 단어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의 구성영역과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Make-Up and subcategory of mother's verbal response type

Make-up of verbal response type	Subcategory of verbal response type
Stimulating	Empathy, Praise, Encouragement
Problem-solving	Command, Warning, Pushing
Critical	Critic, Scold, Comparing
Indifference	Indifference, Cold response, Response of changing topic

3. 연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2012년 8월 18일 서울시에 소재한 P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측정법이 사용되었으며 자료수집은 질문지, 심층면담, 면담노트, 녹화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수집된 어머니들의 면담자료를 통해 전사 및 통합, 자료 분류, 분류된 내용의 해석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는 상황자극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들에게 4개의 상황자극(자기성취의 자랑, 형제간 싸움, 떼쓰기, 친구로의 소외)에 관한 반구조화 형식의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상황자극별로 Park(2001)이 그녀의 연구에서 제시한 12개의 단어들(비판, 칭찬, 격려, 냉담한 말투, 명령, 경고, 비난, 비교, 당부, 무관심, 공감, 화제를 바꾸는 언어)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련 단어들을 선택하고 왜 그 답변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쓰게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질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녹취된 후 의미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상황자극을 위한 면담질문은 Park(2001)이 사용한 상황자극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 검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재구성하였다. 면담질문으로서 첫 번째 상황자극인 자기성취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꽃바구니를 만들고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번째 형제싸움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투거나 갈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 번째 떼쓰기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자녀가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떼를 쓰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번째 소외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다. 면담시 이러한 면담내용들은 연구보조자에 의하여 녹음되었고 연구자는 면담의 내용을 노트했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4개의 상황자극에 따라서 선택한 핵심단어들을 찾아내고 언어반응 유형 영역과 각 하위영역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연구자에 의해서 분류된 자료는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를 통하여 동료검증을 받았다. 연구자는 전사된 면담 내용과 노트한 내용을 통합하여 면담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 중에 생긴 의문점이나 생각은 기록하였다가 연구대상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추가질문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연구대상인 6명 어머니의 면담을 통하여 4개의 상황자극에 따른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성취

‘자기성취’란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잘 해내서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나 또는 자녀 자신이 그것에 대해 흡족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어머니 모두는 12개(비판, 칭찬, 격려, 냉담한 말투, 명령, 경고, 비난, 비교, 당부, 무관심, 공감, 화제를 바꾸는 언어)의 반응 중에서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인 칭찬을 선택했다. 5명의 어머니 A, C, D, E, F 는 일반적인 칭찬을, B는 격려와 함께 구체적인 칭찬을, C, D, F는 과잉 칭찬을, A, B, F는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함께 사용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칭찬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칭찬의 형태와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저 꽃바구니 잘 만들어 칭찬 받아 좋겠네. 아. 잘했네. 손재주가 너무 좋아. 너 말고 또 누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너 혼자 받았어?’ 우리 아이가 클수록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는 게 늘어나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상을 더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고 점점 학습적인 것들에 신경이 더 쓰인다.(어머니 F)

어머니 F는 공감과 칭찬과 비교를 사용하면서 칭찬의 방식은 과잉칭찬의 형태로 보인다.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장할수록 그 전과는 다르게 조급해지고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면서 외형적인 성취와 보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들이 나이가 어린 유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특성이며 문제점이기도 한 경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Kim (1996)의 연구에서 유아의 경쟁적 게임이 협동적 게임보다 공격성 유발의 높은 가능성과 함께 낮은 자아존중감 및 낮은 성취동기를 가져온다는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머니 C, D 경우도 F와 마찬가지로 과잉칭찬을 사용하는 사례이다.

> 나는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편이다. 잘 했을 때는 잘 했다고 말해주고 비록 아이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 편이지만 그러한 때에도 ‘엄마 아빠보다 훨씬 잘 그리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 하고 말해주곤 한다. (어머니 C)

> 나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잘 했을 때 실제보다 더 잘했다고 말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편이다. 그런데 우리아이가 형제가 없고 소심한 편이라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은 잘 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과도하게 칭찬하는 편이다. (어머니 D)

어머니 C와 D의 경우 칭찬과 격려를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칭찬, 격려를 사용하며 촉진적일수록 공감적 이해가 늘어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Jeong 2002). Yoon & Jung(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칭찬, 격려, 공감의 말은 유아의 긍정적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Jeong (2002)이 주장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외형적 보상보다는 그들의 정서를 함께 나누려는 노력과 함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어머니 C와 D 모두 의도적으로 사용한 과잉칭찬이다. Yoon & Jung(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인 자녀에게 실제적 수준과 맞지 않은 과잉칭찬을 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C의 경우는 사실과는 다르지만 일단 자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진실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어머니가 현실과 맞지 않은 칭찬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아 잘했네.’ 하고 먼저 칭찬한 후 아이 눈빛을 보니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리고 아이가 교만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탁

도 하곤 한다. ‘너도 잘했고 다른 친구도 잘 했지?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아이가 ‘친구도 잘 했다.’ 고 말한다. 그 때 아이에게 ‘그렇지. 친구 것도 멋지겠지.’ 라고 맞장구 쳐준다. (어머니 E)

어머니 E는 칭찬과 당부를 함께 사용했다. 어머니 E는 F에 비해서 칭찬은 하되 자녀가 자만하지 않고 친구들과 비교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인성교육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형제간 싸움

‘형제간 싸움’이란 형제끼리 다투거나 서로 간의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때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형제간 싸움의 경우, 12개의 반응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해결제시적 반응 유형인 명령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어머니 B, C, E, F는 주로 명령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것은 무관심과 경고였다. 무관심은 어머니 A, B, C가 사용하였고, 경고는 어머니 C, D, F가 사용하였다. 어머니 A는 공감을, D는 공감과 당부를 선택하였다. 한편 어머니 F는 명령, 경고와 함께 체벌까지 사용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연년생으로 여자, 남자 아이가 있는데 남자 아이가 짓궂어서 여자 아이를 많이 괴롭힌다. 그럴 때는 바로 명령을 한다. ‘너, 누나 괴롭히지마!’ 그 다음에는 ‘누나 괴롭히면 혼나!’ 하고 경고를 한다.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결국은 체벌까지 이어진다. 체벌은 누구의 잘못을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 남자 아이에게 많이 하게 된다. (어머니 F)

어머니 F의 경우는 명령 뒤에 따른 위협성의 경고를 하다가 결국 체벌을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체벌을 사용한 사례들은 체벌을 아직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위계적인 사회구조, 부모의 권위, 효사상, 가족의 응집력에 큰 가치를 두는 문화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체벌이 절제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벌을 받은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자녀를 다시 체벌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는 점 때문이다. 체벌을 받은 유아는 성장하여 충동적이 되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우에게 따돌림을 받아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다. 따라서 체벌은 자녀훈육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부모의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고 부모 자녀관계가 긍정적일 때 체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Lee 2004).

더욱이 어머니 F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아들에게 좀 더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보아 성차에 관한 고정관념 즉 남아는 여아보다 강인하여 체벌을 가해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어머니가 공정한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위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Lee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학대아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연년생 딸 둘이 싸울 때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한다. 그래도 심하게 싸울 때는 큰 아이 이름을 부르며 침착하려 노력한다. 그러면 싸우다가 멈추고 두 아이가 나한테 온다. 나는 아이들이 싸울 때 일단 둘 다 이야기를 잘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싸워서 속상하겠지만 엄마는 더 속상하다.’ 고 말한다. (어머니 A)

어머니 A는 무관심에서 시작하여 나중에 개입하면서 당부를 한다. 아울러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공정함을 잃지 않고 편애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보인다. 또한 자녀가 싸울 때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성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여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사료된다. 어머니가 두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나-전달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알리는 방법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연년생 아들 둘이 있는데 자주 싸운다. 아이들이 싸울 때는 '너희 둘이 얘기 해' 하고 나는 모르는 척 한다. 어떤 때는 서로 싸우다가 협의하는 것을 좀 보려고 우선 지켜보는데 오히려 내버려두면 다시 잘 놀 때도 있다. 가끔 싸움이 심해지는 경우는 경고로 들어간다. 싸울 때 일단 내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경고를 하는 스타일이다. (어머니 C)

어머니 C는 무관심, 경고를 주로 쓰며 자녀싸움에 있어서 방임형의 특성을 보인다. 즉 어머니는 참견은 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녀들이 해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고를 사용하는 사례이다. 어머니가 자녀들이 싸울 때 협의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며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싸울 때 처음엔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지금은 무관심한 방법을 썼더니 아이들이 해결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심하게 싸울 때는 일단 '하지 말라.' 고 말한 다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봐라.'하고 말하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든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큰 아들이 잘못했을 때도 왜 그런지 둘째 아들에게 체벌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다. (어머니 B)

어머니 B는 무관심과 명령과 경고와 함께 체벌과 편애도 한다. Kuczynski & Kochanska(1995)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압적인 힘을 쓰는 부모는 반항하는 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으며 제안과 설명을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협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형제끼리 싸울 때 나타난 유아의 공격성은 부모-자녀관계뿐 아니라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상호작용 및 갈등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Yoon & Kim 2011). 그리고 형제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이며 특히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주며 형제우애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가 특정 자녀만을 옹호하는 것을 알면 다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과 함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도 줄어들 것이다.

3. 떼쓰기

'떼쓰기'는 자녀들이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꼭 해야 하는 행동을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경고로서 어머니 C, E, F가 모두 사용하였다. 어머니 C는 경고와 명령을, A는 당부를, B는 자녀가 떼를 썼을 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활용하여 다른 관심사로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이용했다. 반면 어머니 B만이 공감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A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아이들은 연년생인데 떼를 많이 안 쓰는 편이다. 그런데도 작은 아이가 좀 고집이 있어서 물건 사달라고 떼를 쓰며 가끔 운다. 나는 '울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나는 아이가 울면 울음을 멈추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어머니 A)

어머니 A는 자녀가 떼쓰는 경우 자녀의 인지적 수준에 맞게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당부한다. 그리고 자녀가 울며 이야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도록 설명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양육행동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자주 떼를 쓰며 주저 앉아서 큰 소리로 운다. 로봇을 사주었는데도 또 사달라고 할 때는 경고를 한다. '어제도 샀는데 오늘로 이것 사주면 끝이다. 다음에 또 사달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언젠가 물건

을 안 사주었더니 심하게 울어서 체벌을 준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요즈음은 아이가 울면 나는 혼자 나온다. 그러면 아이가 따라 나온다. (어머니 C)

어머니 C의 경우는 A에 비해서 권위적이고 처벌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 C의 사례에서 나타난 지나치게 떼쓰는 행동과 같은 유아의 과잉행동은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의존성도 높고 공격적이고 비사교적인 성격으로 발전될 수 있다(Yoon & Kim 2011).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기부터의 과잉행동이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이러한 행동을 고쳐나가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반면 어머니 B는 유일하게 공감과 함께 화제 바꾸기를 사용하였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사고 싶다고 하면 '이것 사고 싶지? 정말 멋있다.' 하고 일단 기분을 이해해 준 후 충분히 아이가 그 장난감을 구경하게끔 한다. 그런 다음 화제를 바꾼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 떼를 쓴 적이 별로 없는 편이다. 전에는 계속 말 안들을 때 매를 든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머니 B)

어머니 B는 자녀가 떼쓰는 상황에서 우선 공감해 주며 구경을 충분히 하게 한 후 자녀가 특정한 사물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화제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최근 자주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B, C, 모두 과거의 체벌사용의 흔적이 남아있다. 어머니는 체벌을 사용하기 전에 체벌의 잠재적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녀는 무분별하게 체벌을 주는 어머니를 두려워하며 분개하게 되고 부모의 역할수행이 비효과적으로 되며 자녀와 어머니의 친밀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Toner 1986). 체벌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어머니는 체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교육적으로 체벌 주는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합의 할 수 있는 토론기회를 통해 체벌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면 유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Turner & Finkelhor 1996).

Zahan-Waxler et al.(197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체벌은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즉 동정, 도움,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가지기와 같은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역효과로 나타났다. 유아가 어머니의 말을 안 듣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가 체벌을 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아에게 도덕적인 실망감이나 잘못에 대한 노여움을 표현하는 것이 친사회적 성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ry & Bussy(1984)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요구하고 순종하도록 최소한의 권위를 사용할 때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아이는 외동이라 경쟁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떼를 잘 안 쓴다. 나는 '오늘은 안 돼.' 라고 하면 아이가 알아듣는다. 나는 무서운 엄마다. 그냥 구경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간혹 떼를 쓰면 난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아이가 내게는 떼를 안 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잘 받아주는 편이다. (어머니 D)

어머니 D는 아이가 떼를 쓸 때의 전략이 단호하고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조부모와 아버지와는 다른 훈육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일관된 훈육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치관 혼란을 덜 가져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어머니 E는 당부, 경고를 모두 사용하였다.

상점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우선은 당부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얼마 선에서 한 가지만 사도록 해라.' 그러면 자기가 그 선에서 물건을 고른다. 때때로 갑자기 뭔가를 또 사달라고 조르면 그 다음엔 경고로 들어간다. '무서운 곳에 가서 혼내줄까?' 하고 나의 표정이 바뀌면 울음을 뚝 그친다. (어머니 E)

어머니 E의 경우에서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자

녀가 구입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주는 점은 자녀가 절제를 배우는 좋은 기회로 사료되지만 위협적인 경고는 정서적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4. 소외

'소외'란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또래 놀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 중 공감이었으며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것은 격려와 당부였다. 어머니 D와 F는 공감과 격려를, B는 공감과 당부를, A, E, F는 격려를 사용했다.

> 큰 아이에게서 친구가 놀렸다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 그 때 나는 '그 애가 너를 좋아하나 보다. 널 좋아하기 때문에 너랑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좋아하는 친구가 놀리는 거야.' 라고 말해준다. (어머니 A)

> 여자 아이가 친구한테 놀림을 당하는 것 같다. '네가 속상했구나. 그 애가 널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아니야 그 아이가 날 싫어해서 그래.' 라고 말한다. 그럼 나는 '아니다. 네가 잘 하면 놀아주고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F)

어머니 A와 F는 자녀가 소외를 겪었을 때 격려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대응한다. 이 어머니들은 자녀가 놀림을 당하는 것은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이 동일하다.

> 우리 아들은 외동인데 한번은 선생님이 남녀 짝지어 앉게 할 때 여자 아이들이 서로 우리 아들과 앉겠다고 싸웠다고 한다. 우리 아들은 남자 친구들과 과격하게 노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남자 친구들이 따돌리는 것 같다. 한번은 아들이 울었다. 나는 '네가 속상했겠구나.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 놀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 (어머니 D)

어머니 D는 자녀가 소외되었을 때 공감과 격려를 통하여 자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유아기의 또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의 바람직한 대인관계 확립에도 영향을 준다.

> 우리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왔을 때 일단 얘기를 열심히 듣고 아이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네가 너무 과격하니까 그 아이가 무서워서 그래.' 그리고 우리 아이의 친구가 우리 아이와 놀기 싫다고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네가 친구한테 앞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면 너의 친구도 잘 할 거야.' 그럼 또 다시 친구와 사이좋게 논다. (어머니 B)

어머니 B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 당부를 함께 사용했다. B는 자녀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녀가 납득이 가도록 이해시키며 자녀가 친구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 큰 아이가 아들인데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활동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아들이 하루는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불평을 했다. 나는 '잘 할 수 있어. 어서 함께 놀자고 말해.'.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가 눈물을 좀 흘린 적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서 놀아주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다가온다. 그럼 나는 그 때 슬며시 빠진다. 지금은 친구들끼리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니 E)

어머니 E는 자녀가 소외되었을 때 자녀를 격려하며 자녀 친구 사이에 의도적으로 끼어드는 적절한 중재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잘 확립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

>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친한 친구 있느냐?' 자기가 좋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안 놀아줬다고 했다. '네가 그 친구에게 귀찮게 하지 않았니?' 하고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탁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친구가 싫어하는지 자세히 말해준다. (어머니 C)

어머니 C의 경우도 자녀가 소외되었을 때 그 상황을 세밀하게 설명하도록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며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녀에게 설명과 당부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부모는 자녀가 협의하는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친근감을 갖으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가 유아기부터의 소외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소외를 겪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청소년기에 들어가서 학업부진, 우울증, 공격성, 편집증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Hecht 1998; Seo 2007; Kostelnik et al. 2009).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낮은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유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성별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er(1990)에 의하면 친구들에게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고 우울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아인 경우에는 사회불안이 좀 더 높고 사회적 회피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아동기 말기부터는 남아보다 여아가 친구관계에서 보다 친밀감을 중시하고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좀 더 배타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Jeong(2011)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것은 양육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관계지향적 특성이 중요시되며 사회화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소외현상의 예방대책으로서 어머니는 자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6명이 자녀들과 사용하는 언어적 반응유형들이 분석되었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들에게 4개의 상황자극들이 주어졌고 각 상황자극별로 자녀들에게 어떠한 언어적 반응유형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기성취의 상황에 있어서 자녀에게 촉진적 언어반응 유형인 칭찬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칭찬보다는 일반적인 칭찬이나 과잉칭찬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공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취를 나타냈을 때 지나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중심, 즉 성취지향적인 면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구체적인 칭찬법과 함께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을 강조하는 칭찬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회가 좀 더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형제간 싸움의 상황에서는 어머니들이 해결제시적 언어반응 유형인 명령을, 떼쓰기 상황에서는 경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아직도 위협, 권위, 체벌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속에 설명, 설득, 토의를 통한 언어반응 양식이 강조되는 내용을 좀 더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소외의 상황에서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촉진적인 언어반응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은 다른 상황들 보다 소외의 상황에서 자녀와 더욱 공감대 형성을 잘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어머니들이 서양 어머니들에 비해서 혈연과 집단의 인간관계를 좀 더 강조하는 문화권의 영향으로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며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도 그러한 가치관과 정서가 동일한 양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반면 형제간 싸움에서의 어머니들의 공감은 당부를 하기위해서, 떼쓰기 상황에서의 공감은 궁극적으로는 화제바꾸기를 사용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각 상황마다 어머니들이 사용한 공감의 형태와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소외된 상황뿐 아니라 형제간 싸움 또는 떼쓰기와 같은 어려운 양육 상황들 속에서도 자녀간의 공감대형성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언어반응기술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프로

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예컨대 부모끼리 정보교환하며 마음 나누기, 자녀와 협의하는 기술, 공감증진을 위한 역할극 등이 있다. 아울러 유아기 자녀의 연령과 특성 및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 공감적용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을 임의 표집하여 특정한 몇 개만의 상황들을 다루며 면담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가진 환경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가 양육된 환경 등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이 사용한 언어유형에는 혼용된 개념들이 있어서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경고와 명령이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 경우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 연령, 성장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반응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가 떼를 쓸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른 언어반응을 보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반응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양성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과 양육과정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머니 언어반응 유형과 함께 학동기 자녀의 학업성취도, 학교 부적응, 공격성, 다양한 정서적 문제행동 등을 변인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유아기 자녀와 사용하고 있는 언어반응 유형을 주관적인 면담을 통하여 실존하는 모습 속에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효율적인 언어반응 유형을 사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실제적 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References

Asher S(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A.. Asher & J.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14

Cho SY, Kim M, Kim HW(2011)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tudy pressure,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for children's life satisfaction. J Adolescent Welfare 13(1), 47-67

Gilman R, Huebner E(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 Quart 18(2), 192-205

Gumperz J(1973) Directions in socioling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London: Holt, Reinhart & Winston, pp138-156

Hecht D, Inderbitzen H, Bukowski A(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Abnormal Child Psychol 26, 153-160

Jeong EJ(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verbal response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Master Thesis, Ulsan University, pp 38-40

Jeong HH(2000) Mother's verbal control type and children's emotional anxiety. Korea J Child Care Educ 20, 31-42

Jeong JH(2012) The responsiveness of language impaired children with their mother in the play situation.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2-3

Jeong OB(2011) Understanding of adolescence development. Seoul: Hakjisa, pp76-82

Ju KH(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pattern perceived by children, children's self-esteem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46-47

Kim DS(1996) Effects of cooperative game versus competitive game on affective domai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52-53

Kim JY(1993) A study on parents' self-concept and their change of attitude in parental role training. J P.E.T. at the conference of 1993. Korean Institute of Psychology Counselling, pp23-32

Kim SB(2011)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to peer relationships, empathy ability and self-esteem of isolated students. J Psychol Behavior 3(2), 1-25

Kim YJ(2011) The influence of father and mother's encouragement on altruistic behavi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Master thesis, Kyungnam University, pp53-54

Ko SM(2000) The impact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n children'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pp 42-44

Kostelnik M, Whiren A, Soderman A, Gregory K (2009)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New York: Thomson, pp248-269

Kuczynski L, Kochanska G(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 66, 616-628

Lee DE(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verbal control mode and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ldren.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48-50

Lee HJ, Kim YH, Choi WS, Seo JM(2007) Abused chilren's corelation with their parens and the response-characteristics of dynamic family paintings. Korean J Art Therapy 14(4), 627-647

Lee HK(2003) The traits of social relationships related to parent's dysfuntional communication types children perceive and their adjustment to school. Mater Thesis, Daejeon University, pp53-55

Lee SM, Lee HS(2008)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and parental verbal conrol type on a children's self-resilience. J Korean Home Econ Assoc 46(10), 147-157

Lee SM(2004) An analytical study on controversial issues of corporal punishment-Focusing on the problems and counterplans. Master Thesis, Chuncheon University, pp42-43

Levin K, Currie C(2010) Family structure, mother-child communication,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Health Educ 110 (3), 152-168

Ma JG(1988)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personality trai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p95-97

Min SH(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s cogni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 Master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pp8-9

Park WS(2001) A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verbal response types to situational stimuli and the children's neurotic disposition. J Educ Psychol 15(4), 197-213

Perry D, Bussy K(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322-324

Rye JY, Lim JY(2003)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solated elementary students. J Elementary Educ 16(1), 365-378

Ryu JY(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verbal control type and the child's aggression and self-esteem. Master Thesis, Chuungnam National University, pp48-49

Seo BY(2007)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peer support method for isolated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J Elementary Educ 20(3), 209-227

Shin HG, Yoo IY, Oh EG(2010)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of school 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 Res 16(3), 220-229

Toner I(1986) Punitive and non-punitive discipline and subsequent rule-following in young children. Child Care Quarterly 15(1), 27-37

Turner H, Finkelhor D(1996) Corporal punishment as a stressor among youth. J Marriage Family 58, 155-166

Yoon HY(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ommunication level and children's character traits.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p 51-53

Yoon SY, Jung HS(2010)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fostering behavior by their parents on young children's self-esteem. J Early Childhood Educ 14 (5), 27-54

Yoon SJ, Kim MK(2011) The effect of child aggression on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peer efficacy. J Korean Child Care Educ 7(4), 49-68

Zahan-Waxler C, Radke-Yarrow M, King R(1979) Child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